

## 제3차 OECD통계위원회/제54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결과

### I. OECD 통계위원회

#### 1. 개황

- 회의기간 : 2006. 6. 12(월) ~ 6. 13(화)
- 회의장소 : 파리 소재 국제철도협회(UIC, L'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) 본부 회의장
- 참가규모 : 회원국, 국제기구, 브라질, 중국, 러시아, 슬로베니아 등 대표 약 170명
- 아국 대표단 : 통계청 오갑원 청장, 안정임 국제통계협력과장, 김남훈 인구조사과 서기관, 서신주 비서관, 김경태 호주 파견관 및 OECD대표부 윤면식 주재관
- 대표단 활동 :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(Bureau)에 선임, 국제통계 발전센터 설립 및 OECD 세계포럼 지역 예비회의 개최 관련 국제협력 강화

#### 2. 회의 주요내용

- 국민계정체계(SNA) 개정, 중국의 국민계정통계 수정, OECD의 통계자료 서비스 보급 방향, OECD 제2차 세계포럼 개최, 기업가정 신지표 통계, 보건통계 등에 대해 논의

※ <첨부> “OECD 통계위원회 세부 내용” 참조

#### 3. 국제통계협력 활동

가.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에 선임

- 오갑원 통계청장은 의장단에 선임되어 캐나다(의장국), 뉴질랜드 및 스웨덴(부의장국), 영국, 미국, 스위스, 터키 등(의장단 회원국)과 함께 향후 2년간 통계위원회 사업에 직접 참가할 예정
  - 의장단은 OECD 회원국가와 중국, 러시아 등 주요 읍저버 국가, 그리고 UN, IMF,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하에 향후

## OECD 통계사업 방향을 논의

### 나. 국제통계발전센터(가칭) 설립 관련 국제협력

- 아국 통계청과 UN 통계처가 2006. 3. 3일 뉴욕에서 합의한 가칭 국제통계발전센터(ISDC, International Statistics Development Center)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, World Bank, IMF 등의 국제통계인사와 긴밀하게 접촉

### 다. OECD 세계 포럼 지역 예비회의 개최 홍보

- 이와 함께 아국은 OECD 주관으로 2007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“통계-지식-정책 제2차 세계 포럼” 개최에 앞서 2007년 2월 아시아지역 예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적극 홍보

## 4. 관찰 및 평가

- OECD 통계위원회는 세계 통계활동의 핵심이 되는 국제회의로서 최신의 관련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, 통계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간의 Bridge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도 함
- 따라서 아국의 통계 수준을 널리 알리고 세계 유력 통계인사와 접촉하여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
- 또한 금번 회의에서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에도 동 회의를 적극 주도하여, 아국의 통계를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## II. 유럽통계기관장회의

### 1. 회의 개요

- 회의기간 : 2006. 6. 13(화) ~ 6. 15(목)
  - OECD 통계위원회(6.12 ~ 13일)에 이어 연속으로 개최

- 참가규모 : 51개국, 16개 국제기구 대표 183명
  - 우리나라는 읍저버 자격으로 통계청 안정임 국제통계협력과장, 김남훈 인구조사과 서기관, 김경태 호주 파견관 및 당 대표부 윤면식 주재관 참석

## 2. 회의 주요내용

- 가.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과 비밀보호
  - 국제기구, 연구기관, 학계, 비정부기구(NGO) 등의 정부정책 평가와 조사연구 등에 고품질 통계의 이용이 필수
    - 특히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별도의 통계수집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가
  - 그러나 마이크로 데이터는 비밀보호를 전제로 이용되어야 함
    - \* UN공식통계 기본원칙 제6조 : 통계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계목적 외 사용 금지
    - 마이크로 데이터의 제공은 비밀보호 관련 법규 및 제도와 부합해야 하며 동 데이터는 통계 목적으로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
    - 이와 관련하여 공적 신뢰 확보 차원에서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법규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
  - 통계기관의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음
    - 통계표 또는 다차원구조의 데이터(데이터 큐브, 상세자료를 의미) 제공
    - 익명의 마이크로 데이터 파일 제공: 공공이용 파일\*과 인가 파일 형태가 있으며 인가 파일은 연구자와 통계기관간의 사용 또는 보증계약 필요
      - \*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접속은 상세한 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
    - 통계기관 내에서 엄격한 통제, 감독 하에 데이터 접근을 허용
    - 연구자를 통계기관의 임시직원으로 임명(다만 빈발시 국가기관 의 신뢰도 하락 초래)
    - 어떠한 경우든 기업체 데이터는 식별이 용이하므로 별도의 자료보

## 호 대책 필요

- 통계기관은 비밀노출 우려시에도 일방적인 위험회피 대신 위험관리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
  -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보다는 엄격, 투명한 절차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
    - 이용원칙에 합의하고 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적, 윤리적 근거를 마련
    - 내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비밀보호와 자료이용간의 균형을 유지
  -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시에는 비밀누설의 위험도, 비밀보호(masking)를 위한 항목과 변수의 조정이 적절한 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
  - 사용자의 비밀노출시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, 마이크로 데이터 접근 차단, 해당 연구자에 대한 일체의 통계자료 제공 중단 등 엄격한 대응 필요
- 이와 관련하여 아국 대표단도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통계의 비밀보호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명

## 나. 센서스

- 최근 센서스 실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방법인 조사원의 응답자 면접방식으로부터 우편,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조사, 행정 자료에 의한 등록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
  - 전통적인 센서스는 막대한 조사비용,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문제로 실시하기가 점차 어렵게 됨
- 여러 국가들이 전통적인 센서스를 대체하는 방안의 활용 경험에 대해 발표
  - 아국 대표단도 센서스 방식의 변화는 필수적이나 이로 인한 센서스 자료의 질적 저하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가 2005년 센서스에서 처음 도입한 인터넷 조사의 실시 경험과 자료의 질적 검증을 위한 계획을 소개

#### 다. 통계 인력에 대한 훈련

- 여러 국가들이 우수한 통계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교환
  - 특히 호주 통계청은 2006. 2월부터 역량체계 연계 학습활동으로서 관리자와 직원이 일대일 토의를 통해 개인역량을 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OPALS(Organizational People and Learning System)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함
- 아국 대표단은 각국 및 국제기구에서 통계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ISDC(국제통계개발센터)의 설립을 통해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설명

#### 4. 관찰 및 평가

- 유럽통계기관장회의는 UN 유럽경제위원회(ECE) 회원국의 통계기관장과 UN 산하 국제기구가 모여 각국의 통계 활동 및 지식 공유를 하는 국제회의임
- 동 회의는 국가간 비교가능한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 UN ECE를 중심으로 각종 통계의 기준 및 개념 설정, 조사기법 및 내용의 권고, 개발도상국의 통계생산 지원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되므로 동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통계작성시 국제적 추이를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

#### <첨부>

#### OECD 통계위원회 세부 내용

##### 1. 국민계정체계(SNA) 개정 논의

-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
  - 2004~2006년까지 자문전문가그룹(AEG) 회의 4회 개최
  - 개정 관련 논의는 완료단계이며 새 매뉴얼 작성단계로 진입
    - 2007년초 AEG회의에서 개정판 제1장(핵심부분) 토의

- 2007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개정판 이행권고안 승인 예정
- 2008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개정판 최종안 승인 예정

□ 주요 개정 이슈

- R&D와 군사비용의 자본화
- 정부 소유자산의 자본서비스 평가
- 비적립 연금채무의 부채 인식
- 보증에 대한 새로운 취급
- 손해보험 서비스 평가
- 공공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처리

## 2. 중국의 국민계정통계 수정

□ 1980년대 이전의 중국 국민계정통계는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으로 서비스산업 통계가 매우 취약하였으며, 1990년대 이후 SNA체제로 점차 접근

□ 2004 경제센서스 이후 GDP추계치를 수정

- 2005년말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경제센서스를 기초로 2004년 GDP를 당초 추계치보다 16.8% 증가한 수치로 수정
- 이는 개인 및 민간기업이 크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통계 시스템의 미비로 누락되었던 서비스 부문들의 추가 포착에 기인
  - 이로 인해 중국의 산업간 비중, 산업발전 단계,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, 무역의존도 및 소비비중 등 관련 경제수치의 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, 중국경제의 재평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
- 중앙과 지방간에 GDP 추계의 기초자료가 통일되었으며 특히 3차산업의 통계제도와 방법을 개선하여 GDP 총량을 추계
- 이러한 통계수정은 과거 통계수단의 낙후 등 통계시스템의 불안전과 소규모 업체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, 서비스업의 신규 창출

## 등을 감안한 것임

### □ 중국 국민계정통계의 단점 및 애로사항

- 서비스업의 경우 신흥 업종의 등장 등으로 종류가 광범위하고 업체 수도 많은 가운데 개별 업체의 재무회계제도가 건전하지 못하여 통계수단이 상대적으로 낙후
- 개혁, 개방이 심화함에 따라 경제의 구성요소가 날로 다양해 짐
- 공업, 건축업계가 경영하는 일부 부속 서비스업을 2차산업 통계에 포괄 편입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더욱 많음

### □ 국민계정 후속발전 계획

- 광범위한 2차 및 3차 산업을 대상으로 기본업체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
- GDP 수준의 역사적 비교를 위해 국제관례에 따라 과거 통계수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
  - 현재 국가통계국은 경제총조사의 연간 GDP 계산수치에 기초하여 SNA93에 따라 1993년 이후의 통계수치를 수정 중

## 3. OECD의 통계자료 서비스 보급 방향

### □ OECD 통계자료 서비스는 유료, 무상 정책을 혼합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% 이상 증가 추세

- 연간 4.5백만 유로의 통계수입 발생
  - 'SourceOECD'시스템(2.6백만 Euro), 인쇄책자(1.0백만 Euro), CD/DVD(0.34백만 Euro), 2차 판매업자(0.5백만 Euro)
- 'free-at-the-point-of-use' 방식으로 도서관(기관)에 유상 접근 권한을 부여한 후 실이용자는 무상으로 자유롭게 통계자료 이용
- 2005년 한해 OECD포탈에서 약 680,000건의 다운로드서비스 기록
- 2005년 OECD Factbook 출판은 첫해 3,000부 판매를 기록하면서 동일 자료의 온라인 무료서비스를 통해서도 75,000번 다운로드

- 앞으로 통계 서비스의 목표고객(이용자)과 요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할 필요
  - 3 종류의 통계 서비스
    - Complete Database: 고급 이용자용(온라인)
    - Ready-made tables: 중급 이용자용(인쇄, 온라인)
    - Ready-made tables with commentary: 초급용(인쇄, 온라인)
  
- 통계서비스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 조달이 필요하므로 통계 수입에 상응하는 예산배분을 제안
  - OECD 발간예산(B75)에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투자비 계상
  - 통계자료수입 초과분의 재투자 허가
  - 회원국의 프로젝트 기금 협조
  - 외부의 기부금 모금 등

#### 4. OECD 세계포럼 개최

- OECD의 통계-지식-정책 관련 제2차 세계포럼이 2007.6.27~30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
  - 사회발전 측정과 성취를 위한 최적 방법을 규정하고 근거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지표의 개발, 보급, 이용방법 관련 제반작업 포괄
  - 제1차 세계포럼은 2004.11월 이태리 팔레르모에서 개최되었는데 43개국에서 540명이 참가하고 웹캐스트를 통해 수천명이 참관
    - 동 회의의 후속조치로 OECD 팩트북을 2005.3월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06.9월에는 ‘OECD국가의 남과 여’를 신규 발간할 예정
  
- 제2차 세계포럼의 주요 내용
  - 핵심주제 : 사회발전(Progress)의 측정
  - 개도국 포함 43개국에서 800명 초청 예정

- 4일간 기조연설, 전체회의, 분임회의, 패널토론 등 행사
- 회의를 진정한 지식경험의 장으로 하고 인적 교류를 극대화하는데 초점
- 지역 예비회의 개최
  - 남미(코스타리카, 2006.9), 중동(카타르, 2006 하반기), 아프리카(르완다, 2007.1), 아시아(한국, 2007.2.7-9), CIS(러시아, 2007년초)

## 5. 기업가정신지표 통계

- OECD 통계국은 기업가정신 관련 국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
  - 기업가정신 데이터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지금이 국제적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적기이며 OECD가 이를 주도코자 함
  - 논리적, 단계적 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지표와 함께 정기 국제 비교를 위한 스코어보드를 개발코자 함
    - 정의, 방법론, 지표구조를 포함하는 매뉴얼 작성
    - OECD 기업가정신지표 운영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국제토론 네트워크를 구성
  - 이 분야 국제협력 구조를 개발, 탐색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관심 있는 6~7개 국가 대상으로 실시코자 함
  
- Kauffman재단과 관심국가 컨소시엄에서 재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통계국은 2008년말까지 진행될 2단계 재원의 제공자를 물색할 예정
  - 1단계(2005~6) : 가능성 연구, 사업계획 작성
  - 2단계(2006~8) : 시험조사, 측정매뉴얼·스코어보드 작성 등
  - 3단계(2008년 이후) : 참가국 확대, 측정 본격 추진

## 6. 보건 통계

- OECD는 국가의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, 의료 제도의 운용, 투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의 생산에 주력해왔으며, 이러한 연구 성과는 매년 OECD Health Data와 격년으로 발간되는 Health at a Glance에 수록
- 2004년 보건장관회의에서는 OECD가 의료제도의 국제비교와 경제적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보건통계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결의(mandate)를 재확인
  - 시의성과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WHO, EC, 기타 국제기구의 통계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함
  -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 계정의 실행을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함
  - OECD는 각국 전문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보건 의료의 수준 및 의료 제도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개발함
- OECD의 보건계정과 관련된 작업은 국가별 보건계정추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료의 수집, SHA 실행의 결과 분석 및 발표, 방법론 개발 등 상호 연관된 3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OECD는 의료제도의 분야별 비교 및 국제 기준과 관련 데이터 수집이 미진한 분야를 개척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
  - 의료지출과 의료제도의 자금조달에 관한 비교 가능한 조치개발
  - 의료제도에 투입되는 재원의 지표에 관한 보충지표로서 의료수준 지표를 개발